

우주산업·생활문화 복합공간 ‘스페이스고흥’ 준공

군, 130억원 투입...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조성
공용오피스·대회의실 등 우주산업 거점 역할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조성한 ‘스페이스고흥’을 최근 준공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스페이스고흥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김민열 고흥군의회 의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기념사와 축사, 현판 제막,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스페이스고흥은 고흥군청사 옆 부지에 조성된 복합시설로,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업무와 교류를 지원하는 기업지원공간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을 함께 갖췄다.

2023년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30억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 12월 착공해 이날 준공했다.

연면적 307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 1층 누리홀에는 5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이 마련돼 회의와 교육은 물론 공연·문화행사와 주민행사 등에 활용된다.

1층에는 우주가상체험형 북카페와 홍보전시관을 조성했다. 북카페는 주민과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홍보전시관은 고흥의 우주산업과 우주발사체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2·3층은 공용오피스로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과 국가산단 입주기업 등이 일정 기간 연구·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조성한 ‘스페이스고흥’을 준공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

의 고흥 정착과 기업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2층 공용오피스에는 지난 8월부터

우주항공전략실이 입주해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층에는 스카이라운지 등 생활문화 공

간을 조성해 주민과 방문객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스페이스고흥이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

진기지가자 군민과 청소년에게 우주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가을 여행은 여수 섬으로”...섬 매력에 발길 ‘복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시행 이후 여수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여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참여 실적을 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사전신청은 4500여명을 기록했으며, 정산액도 1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섬에서 3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육지 관광 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다양한 숙박시설과 예술의 섬 장도, 항일암, 오동도, 아쿠아플라넷 여수, 예술랜드, 일레브브릿지 등 관광지를 연계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들의 관

사전신청 4500여명·정산액 1억...참여 시·군 중 최고 실적
내달 4일부터 ‘섬섬여수페이’ 환급...골목상권 활력 기대도

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을 제철 음식도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요인이다. 전여회와 전여구회를 비롯해 계장백반, 여수한정식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음식도 여수 여행의 묘미를 더한다.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은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맞아 전국 최초로 섬을 대상으

로 한 관광 지원사업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운영됐다.

시는 11월 4일까지 대표 섬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을 방문해 숙박·음식·체험 등 관광경비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1인 최대 10만원까지 모바일 지역화폐인 ‘섬섬여수페이’로 환급한다. 대상 섬은 금오도, 개도, 거문도, 하화도, 사도, 손죽도, 초도, 안도, 연도, 여

지도 등 10곳이다.

여행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전남광주관광 플랫폼 ‘JG TOUR’ 앱에서 여행출발 하루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섬 반값여행을 계기로 숨겨진 보석 같은 여수의 섬의 매력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며 “섬 반값여행, 여객선 반값 할인, 섬 1박 3식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가을 여수의 섬과 바다를 특별하게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가 최근 관산을 영농현장을 찾아 벼 병충해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청

사순문 장흥군수, 병충해 피해 현장 점검

농가 애로사항 청취... 피해 최소화 예상·방제 강화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는 최근 관산을 영농현장을 찾아 벼 병충해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발생한 병충해의 피해 규모와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순문 군수는 현장에서 벼 생육 상태와 병충해 피해 정도, 농가별 방제 현황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피해 농가를 만나 영농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

강화하고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 군수는 스마트농업 영농지원 현장을 확인하고 관산을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등 지역 농업 현안과 영농 지원체계 전반을 살폈다.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충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과 방제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순문 군수는 “병충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

광양,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추진

교육지원청과 협약...교육·취업·정주 체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추진에 나서며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시민홀에서 광양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교육혁신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지난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교육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광양의 배움, K-교육을 이끈다’는 비전 아래 교육격차 해소,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글로벌 K-교육 확산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의 산업·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교육에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어 열린 지역



교육혁신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광양시와 광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업무협약과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기획서를 최종 보완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보성, 청년 97명과 지역 이해 확대

관광자원·정책 영상 제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최근 제암산자연휴양림과 보성읍 일원에서 ‘보성청년 3보 챌린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청년과 보성 청년이 함께 3경(산·바다·호수), 3보항(다항·의항·예항) 고장 보성의 세 가지 보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발견하고,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는 수도권 30명, 영남 22명, 광주·전남 29명, 보성 16명 등 총 97명이다. 이들은 14개 팀을 구성해 지역 탐방과 협력 과제를 수행했다.

주요 결과물은 보성의 관광자원과 정책 협약과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4건이다. 참가자들은 보성의 매력을 담아내고, 보성에서 펼칠 수 있는 활동과 사업을 구체화했다.

행사 첫날에는 보성군청에서 팀별 자기소개와 협력 과제 3개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역할을 나누고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팀원 간 소통과 협력을 다졌다.

이어 보성녹차골향토시장, 열선루, 대한다원, 울포솔밭해수욕장 등 5개 장소를 탐방했다. 팀마다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관광자원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팀별 아이디어 구상과 교류 활동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탐방 과정에서 느낀 점과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성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및 사업 등을 논의했다.

팀별 지역 연계 아이디어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심사 결과 보성의 3보를 주제로 열선루·대한다원·울포솔밭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보성하루코스’ 아이디어를 제안한 10조가 대상을 받았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순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선정

내년 상반기 개소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최근 신한금융그룹과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6년 하반기 신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신한 꿈도담터’사업은 맞벌이 가구와 양육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약 9000만원 규모의 공간 인테리어 비용과 놀이·학습 기자재,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신청사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내에 조성되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2027년 상반기 정식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곳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가족친화형 돌봄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든든한 돌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돌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